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14

“우리도 함께 뛰다”

남도의 봄을 달리는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의 47번째 질주가 14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마라톤 동호회·기관·단체·시민들이 힘찬 질주로 3·1운동의 기상을 높이기 위해 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단체팀들을 소개한다.



(주)제일감정평가법인 임직원들이 광주일보 3.1절 마라톤을 통해 재도약의 한해를 보내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나주 특수무술 열린무예관 소속 수련생들이 최근 봉사활동을 마치고 기념촬영하며 3·1 마라톤대회 완주를 다짐했다.

“마라톤 정신으로 ‘공정 평가’ 실현”

■ 제일감정평가법인

“마라톤으로 다진 건강으로 감정평가의 사회적 책임과 소명을 다하고 2012년 변화와 도전을 통한 재도약을 노력하겠습니다.”

창립 39주년을 맞은 국토해양부등록 감정평가법인 제1호인 (주)제일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가 제47회 광주일보 3.1절 마라톤을 통해 재도약의 한해를 보내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주)제일감정평가법인은 광주전남지사를 비롯 전국에 최대 14개 지사망을 갖추고 있다. 자본금만 60억4000만원, 2007년 연매출 500억원을 달성한 이후 감정평가사 및 직원수 등에서 업계 규모 1위를 자랑하는 최대법인으로 자리매김했다.

행정복합도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4대강사업, 여수엑

스포 관련 등 광주전남의 주요보상평가에 참여해오면서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과의 원활한 협의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에 임해 오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업계 최고를 자부하는 제일감정평가의 매년 3·1절 마라톤을 화합의 장으로 삼고 있다. 마라톤을 통해 회사의 건강과 화합을 챙기고 있는 만큼 마라톤에 대한 직원들의 애정도 각별하다.

제일감정평가의 단체마라톤 출전의 출발은 ‘회사의 자랑’ 정진호 평가사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정씨는 마라톤 마니아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난 기록의 사나이이다. 풀코스를 142차례 완주한 정씨는 100km 울트라 마라톤에서도 7차례 결승선을 통과했다. 정씨의 마라톤 사랑이 바탕이 돼 회사

에서는 연2회 마라톤 공식 행사를 갖고, 임직원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사내 최고령으로 60세를 넘긴 박재우 평가사도 이번 대회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프 코스에 도전하는 박씨는 내년 시즌에는 풀코스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로 체력단련기에 한창이다.

광주전남지사장 감충남 평가사는 “모든 임직원이 마라톤처럼 지치지 않고 달려나가기를 바라면서 3·1절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오고 있다. 2012년 전사의 도전적 목표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마라톤 정신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를 바란다”며 “또 이번 대회를 통해 3.1정신을 계승하고 재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온 힘을 다해 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3·1 마라톤은 새 학기의 활력소”

■ 나주 특공무술 열린무예관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도전하는 정신으로 출발선에 서겠습니다.”

새봄의 시작을 알리는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에서 ‘미래 꿈나무’들의 힘찬 질주가 펼쳐진다.

특공무술로 심신을 단련하고 있는 나주 특공무술 열린무예관 소속 수련생들이 3·1 마라톤대회 출전을 위해 광주나들이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의 나들이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이들은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열리는 3·1 마라톤에 출전해 스스로 평가를 해겠다는 자부심을 키워가고 있다.

수련생들과 함께 질주를 하게 될 특공무술 5단의 문원기 관장은 “3·1절은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

이들에게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려주고 또 무술의 기본이 되는 지구력과 인내심을 키울 수 있도록 매년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며 “마라톤이라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아이들이 자부심도 얻고 도전정신도 배우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들은 마라톤을 통해 지구력과 건강은 물론 마음도 함께 키워나가고 있다. 완주를 통해 얻은 자신감은 새 학기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이들은 빨리 달리는 것보다 함께 달리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원 완주에 도전한다. 특공무술로 체력을 키워온 만큼 대회를 앞둔 이들은 자신감이 넘친다.

문 관장은 전원완주를 위해 뒤처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가장 뒤에서 달려며 새봄을 맞을 계획이다. 이별철 사범의 각오도 남다르다. 아

범은 지난 10월 군에서 제대하면서 체육관에 복귀한 지 이제 겨우 세 달밖에 되지 않았다. 이 사범은 아이들과 건강과 질주를 하면서 군복무를 마치고 맞는 첫 봄에 특별한 추억을 남길 예정이다.

나주 특공무술 열린무예관 수련생들은 무술과 마라톤으로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새봄’으로 자라나고 있다.

수련생들은 마음단련을 위해 나주 장애인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매월 복지관을 찾아 특공무술을 알리면서 재능 기부 활동을 하고 있고, 나주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가해 특공무술 시범을 하면서 지역봉사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나주 특공무술 열린무예관의 건강한 질주가 새 봄을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더 커지고 더 강렬해졌다.’

광주 FC가 한층 두터워진 공격진을 앞세워 화려한 공격 축구를 예고하고 있다.

물이 오른 토종 공격수 박기동·김동섭에 새로 가세한 외국인 선수 북이·슈바가 광주 공격에 날개를 달았다. 특히 두 신임 외국인 선수는 기존 멤버인 주앙파울로와 함께 개성만점의 ‘복주슈 트리오’를 구성하면서 K리그 판도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K리그 최장신(201cm) 북이의 합류로 장대군단이 형성됐다. 박기동(191cm)·김동섭(187cm) 그리고 슈바(186cm)까지 4명의 공격수 평균키는 무려 191cm에 이른다. 광주는 장대군단을 전면에 내세우고 팀내 최단신인 주앙파울로(170cm)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순발력으로 상대 수비수들을 교란하겠다는 계획이다. 북이가 광주 공격의 정점에 서있다.

광주 FC ‘복주슈 트리오’를 아시나요?

북이·주앙파울로·슈바 개성 만점 용병 공격진 구축

연습경기에서 북이는 일단 높이로 상대 수비수들을 압도하고 있다. 높이를 맞추는데 에를 먹는 수비수들은 아예 공중볼 다름을 포기하는 모습이다.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위력은 물론 원발 슈팅도 좋아 기습적인 한방도 가능하다.

슈바는 광주의 파괴력을 더한다. 전방·포항을 거머쥐며 K리그에서 이미 실력을 검증받은 만큼 슈바는 몸 준비가 끝나는데도 곧바로 실전 무대에 투입될 예정이다.



더 커지고 강렬해진 광주 FC의 공격진. 왼쪽부터 북이 슈바 주앙파울로 박기동 김동섭.

조커로 광주 공격을 주도했던 주앙파울로 역시 연습경기에서 매경기 득점에 성공하며 공격본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개성 만점의 세 외국인 선수 가운데서 광주의 높이와 파워가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복주슈 트리오’는 팀 적응력에서

도 ‘A+’를 받았다. 주앙파울로는 지난 10일 마련된 자체 장기자랑 무대에서 타이즈 차림으로 등장해 막춤을 추는 등 완벽한 공

토종 박기동·김동섭 가세 울시즌 화려한 공격축구 예고

주선수로 자리를 굳혔다. 북이도 유럽 진출까지 마다하고 광주를 선택할 정도로 광주 선수단과 하나가 됐다. 슈바도 유창한 발음으로 한국어를 구사하는 등 팀 적응은 끝났다.

문제는 실전 무대다.

최만희 감독은 “북이를 통해서 여러가지 조합으로 전·후반 공격라인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북이가 K리그의 까다로운 수비수들을 얼마나 잘 상대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다”며 “또 슈바의 경우 아직 몸이 완

벽하지는 않다. 본인은 뛰고 싶어하지만 완벽하게 준비해서 활동하겠다. 재능이 있고 선수단과 잘 어울리고 있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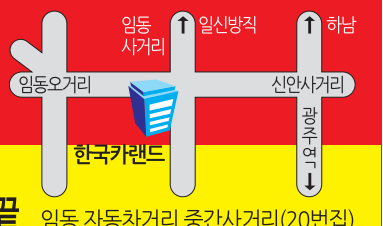
토종 공격 듀오 박기동·김동섭의 움직임도 좋다. 각각 발목부상과 율리페대표팀 차출로 연습경기에 출격하지 못했던 박기동과 김동섭은 지난 11·12일 두 차례 호흡을 맞췄다. 100일 만에 처음으로 나란히 공격라인에 섰지만 두 선수는 가벼운 움직임으로 최 감독에게 합격점을 받았다.

여기에 2011 신인왕 미드필더 이승기의 목직한 슈팅은 광주의 또 다른 병기다. 최 감독은 이번 전지훈련에서 이승기에게 공격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승기도 공격포인트에 욕심을 부리겠다는 각오다.

더욱 막강해진 광주의 화력은 올 시즌 K리그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일일신협 조합원의 집)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 일: 루마뽀팅, 3M코팅, 모비스썬팅, 액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용클리닝, 허부언더코팅,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샤크안테나, 자동차경비일체, 빗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비뒀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서리 일체, 이차기 도난경보기, 후방카메라, 전국 최저가 판매, 국내 최대 500평매장, 주차장 700평 주차경쟁 끝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 거치형 본인 네비 매립 전자종 17만원 ⇒ 12만원

- ▶ 아이나비KL100, 3D(8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50만원
- ▶ 아이나비ES500,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7만원
- ▶ 만도정품MD300,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5만원
- ▶ 만도지니 J7,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48만원 ⇒ 40만원
- ▶ 모비스폰토스 PU-7, 3D+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60만원 ⇒ 52만원
- ▶ 모비스폰토스 K-7, 2D+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5만원

▶ 트립형 매립차량은 상담후결정

트립 이동형 장착 모습

매립장착모델 전자종기능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샤크안테나

만도 블랙박스 BN100

- ▶ 본인네비 매립 = 17만원 ⇒ 12만원
- ▶ 후방카메라 = 15만원 ⇒ 9만원
- ▶ 샤크안테나 = 10만원 ⇒ 6만원
- ▶ 만도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 35만원 ⇒ 30만원
- ▶ 모비스블랙박스 4기가 전방 = 22만원 ⇒ 19만원
- ▶ 모비스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 37만원 ⇒ 33만원

대한민국 대표 후방카메라 시그널 후방카메라

샤크안테나 및 통합안테나

도난경보기 | 이자카 | 스타트버튼

▶ 추가부품(옵션) 차량은 금액이 추가 될수 있음

- ▶ E770S 40만원
- ▶ E7-S 43만원 / E7-B 51만원
- ▶ E7 37만원
- ▶ E7 17만원
- ▶ E2620 10~14만원
- ▶ E75500 25만원
- ▶ E1 7만원
- ▶ E2620 10~14만원
- ▶ E7 37만원
- ▶ E7 17만원

*차량용 고급합수 2만원 상당 무료증정